굿네이버스

국제개발협력 이슈포커스 -7호-
International Development Issue Focus
발행처: 굿네이버스 국제개발정책센터 발행월: 2020년 8월

굿네이버스 국제개발협력 이슈포커스는 국내외 주목할 만한 국제개발협력 이슈를 공유함으로써 전 세계 모든 형태의 빈곤과 불평등을 감소시키기 위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이행을 촉구하고, 국제개발협력 사업, 정책,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간되었습니다.

국제개발협력과 코로나19: 굿네이버스 대응 현황과 향후 과제

International Development & COVID-19:
Lessons Learnt and Implications from Good Neighbors' Global Response to COVID-19

© Good Neighbors

Purpose 이번 이슈포커스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개발도상국의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및 국가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굿네이버스 대응 노력 및 과제를 살펴보고, 향후 국제사회의 효과적인 코로나19 대응 및 파트너십을 위한 제언을 도출하고자 한다.

Key message |

굿네이버스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굿네이버스 글로벌 전략'을 수립하여 국제기구, 현지 NGO, 지역사회 등 다양한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대응 활동을 진행해오고 있다. '취약계층 우선', '안전 및 보안 최우선', '파트너십 강화'라는 세 가지 주요 원칙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발도상국 주민들의 생계가 회복되고 열악한 보건의료시스템 및 사회제도가 개선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효과적인 코로나19 대응과 중장기적인 지역사회 회복을 위한 사업적·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장기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정책적 제언:

- 국제사회는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 국제 연대 및 다양한 주체와의 파트너십을 확대해야 한다.
- 감염병에 특히 취약한 빈곤층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는 현장(지역사회) 중심의 사업수행체계와 네트워크를 갖춘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이 매우 중요하다.
- 효과적인 위기대응을 위해서 주민들과의 협력과 지역 네트워크 중심의 소통이 필요하다.
- 향후 한국 ODA 시행계획은 보건의료분야 집중과 더불어 사회 전반이 함께 회복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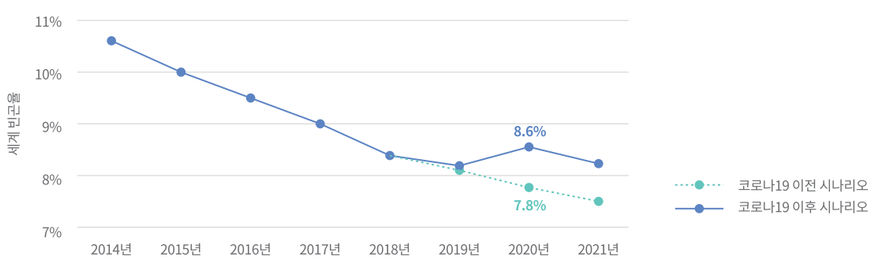
Situation |

1. 국제개발협력과 코로나19: 글로벌 현황

2019년 1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ronavirus disease, COVID-19)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코로나19는 빠르게 확산되어 7개월 만에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 1,760만여 명, 사망자 수 67만여 명을 돌파했다(2020.8.1. 기준). 전 세계는 보건 위기를 넘어 일자리 감소, 식량 부족, 학교 수업 중단으로 인한 교육 붕괴 현상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글로벌 사회적·경제적 위기는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확산은 세계 빈곤율에도 큰 여파를 가져왔다. 세계은행(World Bank)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세계 빈곤율은 8.2%(2019)에서 8.6%(2020)로, 하루에 1.90달러 이하로 살아가는 빈곤인구는 6억 3,200만 명에서 6억 6,5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결과적으로 2020년에만 전 세계 4,900만 명 정도가 극심한 빈곤에 내몰릴 것으로 보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이 2,300만 명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 그 다음으로는 남아시아 지역이 1,600만 명으로 추산된다.[1]

코로나19가 세계 빈곤율에 미치는 영향



*출처: CCSA. How COVID-19 is changing the world: a statistical perspective. p.60

1) The Committee for the Coordination of Statistical Activities(CCSA), How COVID-19 is changing the world: a statistical perspective. p.60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국제사회의 공동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달성 또한 코로나19로부터 위협받고 있다. 2020년 지속가능개발보고서에 의하면 코로나19가 17개 모든 목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SDG 1(빈곤퇴치), SDG 2(기아종식), SDG 3(건강과 웰빙), SDG 8(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SDG 10(불평등 감소) 달성에 단기적으로 가장 부정적인 영향(highly negative impact)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2] 전 세계적으로 식량 부족, 빈곤, 보건,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취약국과 취약인구가 겪는 사회경제적 차별과 불평등 현상은 더욱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 국제사회는 감염병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는 개발도상국의 열악한 보건의료 재정 및 인프라, 의료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제 연대, ODA 예산 확보, 시민사회 및 민간부문의 역할 확대, 취약계층과 최빈국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함을 호소하고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코로나19와 같은 인도적 위기로부터 효과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현지 대응 역량강화와 현지 리더십 강화가 요구되며, 국제적 긴급구호과 현지의 역량이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해야 한다고 분석되고 있다.[3]

2. 빈곤과 코로나19: 지역사회 및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

코로나19는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직면한 위기이지만 그 영향은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분배되지는 않는다. 이 감염병으로 인한 위기는 전 세계 경제 및 보건의료시스템,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을 드러내고 있으며 가장 취약한 사람들, 특히 개발도상국이나 인도주의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욱 치명적이고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친다.

유엔개발계획(UNDP)은 전 세계 188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보건 및 교육시스템 조사 결과보고서에서 특히 개도국들이 코로나19 위기 대처 능력이 취약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는 열악한 보건의료 재정과 인프라, 의료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가진 개도국의 감염 위기를 더욱 높이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NI) 995달러 이하인 저소득국은 1인당 보건지출액이 41달러로, 고소득국 3,024달러에 비해 현저히 낮고[4], 2015년 기준 내과의사는 인구 1,000명당 0.3명 수준으로 고소득국 3.0 대비 1/10 수준[5]으로 나타난 바 보건의료시스템이 매우 취약한 것을 알 수 있다.

팬데믹 상황에서 안전하게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지역공동체의 역할이 중요하다.[6] 2014년에 발생했던 에볼라(Ebola) 대응 경험을 통해서도 전염병 확산 방지와 치료에 있어 지역사회와 공동체의 역할과 그 중요성을 확인한 바 있다.[7] 특히 지역인프라가 부족한 개발도상국에서는 재난·재해를 비롯한 감염병에 대응하는 지역사회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국가의 보건의료시스템을 보완하고 잘 갖추어 공공 대응역량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도록 제도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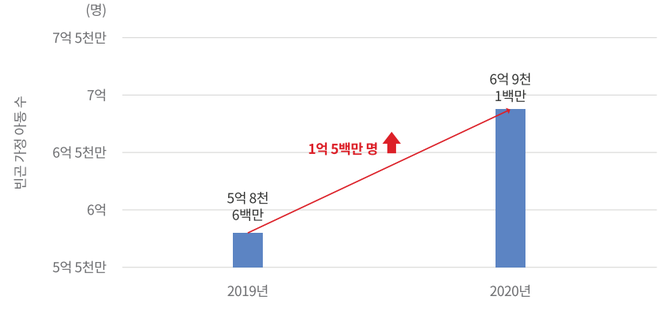
팬데믹 상황에서 빈곤 지역의 취약한 보건의료시스템은 주민들의 건강 문제, 더 나아가 생존의 위기로 귀결되며 취약계층은 더욱 소외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다음에서는 코로나19가 아동, 여성 및 여아, 난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2) Cambridge University Press(2020).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20: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Covid-19.
3) Humanitarian Policy Group(July 2020). 'All eyes are on local actors': Covid-19 and local humanitarian action.
4) WHO(2020). Global Health Expenditure Database(검색일: 2020.5.7.); 세계은행(World Bank)의 소득수준별 국가 구분(2017년 기준).
5)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2015년 기준).
6) WHO(2020). Community-based health care, including outreach and campaigns, in the context of the Covid-19 pandemic.
7) World Bank(2020). Community response to Covid-19: The resilience of Indonesia.

· 아동

유니세프(UNICEF)와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는 2020년까지 경제적 빈곤 가정에 사는 아동 수를 최대 1억 1,700만 명 더 증가시킬 수 있다. 이 감염병의 영향으로 인한 실업 및 갑작스러운 가계소득의 감소는 식량과 식수 등 기본적인 생계를 감당할 수 없게 만들고 보건서비스나 교육을 받을 가능성을 감소시키며, 더 나아가 폭력 및 착취, 학대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전 세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빈곤 가정 아동 수



*출처: Children in Monetary Poor Households and COVID-19: Protections as of 29 June 2020

코로나19가 아동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영역은 교육분야로, 많은 아동들이 학교 교육접근성 감소로 인한 학습 위기에 처해있다. 전 세계 188개 국가에서 전국적인 학교 폐쇄를 시행하여 16억 명 이상의 아동과 청소년이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8] 교육 단절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은 아동 생애 평생에 걸쳐 지속될 수 있다.

· 여성과 여아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가정에서 여성에 대한 사회의 의존도를 증가시킨다. 자원이 부족하고 사회의 제도적 능력이 제한적인 위기 상황에서는 누구보다 여성과 여아들이 갈등 및 취약성에 더 많이 노출된다.[9] 여성과 여아 노동의 비율이 높은 개발도상국의 경우 감염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영향을 받아 갑작스런 소득이 감소될 수 있고, 격리 조치로 인해 가정에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함으로써 가정폭력 증가의 우려도 상존한다. WHO에 의하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전 세계에서 가정폭력 핫라인 신고가 최대 50% 수준까지 증가했으며, 이는 사회보호시스템의 중단, 가정 내 스트레스 증가, 외부교류의 부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10] 하지만 가정폭력은 다른 현상에 비해 발견이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

· 난민

난민과 실향민들은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고 취약한 사람들에 속한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의하면 전 세계 난민의 80% 이상과 대부분의 실향민은 중저소득국가에 머무르게 되므로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취약한 상황에 자주 직면하게 된다.[11] 난민캠프의 특성 상 인구밀도가 높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가 불가하여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고, 이들은 국가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12] 식수, 위생시설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감염병 발생 시 특히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8) UNICEF: COVID-19 and Children https://data.unicef.org/topic/covid-19-and-children/
9) UNWOMEN: How Covid-19 Impacts Women and Girls https://interactive.unwomen.org/multimedia/explainer/covid19/en/index.html
10) WHO: https://www.un.org/en/coronavirus/un-supporting-%E2%80%98trapped%E2%80%99-domestic-violence-victims-during-covid-19-pandemic
11) UNHCR: Coronavirus outbreak https://www.unhcr.org/coronavirus-covid-19.html
12) UNDP(2020). Covid-19 and social protection of poor and vulnerable groups in Latin America: a conceptual framework.

3. 국제기구의 코로나19 대응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이후 아시아 지역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자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 3월 11일 팬데믹(Pandemic)을 선언했으며, 이에 따라 국제기구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UN은 2020년 4월 '코로나19 사회경제적 대응을 위한 UN 프레임워크(UN framework for the immediate socio-economic response to Covid-19)'를 구축했다.[13] 프레임워크는 '보건서비스 및 시스템 역량 강화',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및 기본적인 사회서비스 제공', '고용 기회, 중소기업 및 임시고용직(informal worker) 보호', '거시경제 대응 및 다자협력 확대', '지역사회 연대 및 공동체 회복력(resilience) 강화' 등 5개 주요 전략을 중심으로 수립되었으며 중·저소득국 지원을 위한 별도 펀드(Response and Recovery Trust Fund)가 마련되었다.

UN 프레임워크는 코로나19 대응 전반에 있어 SDGs의 주요 의제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Leave no one behind)'을 핵심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를 강조하고, 효과적인 대응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역사회 연대와 공동체 회복력 강화를 주요 전략에 포함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회경제적 대응을 위한 UN 프레임워크 5개 주요 전략

13) UN(2020). A UN framework for the immediate socio-economic response to COVID-19.

4. 한국 정부와 시만사회의 코로나19 대응

1)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정책

한국 정부는 「2021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대내외 개발협력 환경 분석을 바탕으로 ODA 규모의 지속적인 확대와 더불어 보건·의료ODA를 핵심 분야의 하나로 선정, 그 규모를 2020년 2,773억 원 대비 2021년에는 3,707억 원(요구액 기준)으로 33.7% 증가시키는 계획을 밝혔다.

외교부는 개발도상국의 코로나19 대응 및 중장기 지속가능발전 지원을 위한 개발협력 전략으로 <다함께 안전한 세상을 위한 개발협력구상(ODA KOREA: Building TRUST[14])> 추진 계획을 밝혔다. 본 구상은 '인도적 지원', '중점방역협력국·기구 대상의 보건협력', '경제·사회적 영향 대응 지원'의 3대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교부는 우선 올해 총 360억 원 규모의 무상원조사업으로 '코로나19 대응 포괄적 긴급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이다. 동 프로그램은 '코로나19 대응 임시병원/시설확충, 전문인력 역량강화, 민간·시민사회·국제기구 협업, 기존 사업연계 및 거점화' 등 크게 네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부 간 지원과 더불어 민간협력에 있어서는 특히 NGO, 국제기구가 보유한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한 취약계층 긴급 위생필수품 제공 및 인식교육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한국 최대 무상원조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는 'Save Lives, Safe Livelihood'를 목표로 중장기적(Response: 2020~2021, Resilience: 2022~2024) 코로나19 대응 전략인 <ABC 전략>을 발표했다. 동 전략에는 '보건의료 취약국 지원(Action to Fragility)', '개도국 감염병 관리역량 강화(Building Capacity)', '한국 경험활용 글로벌 연대 강화(Comprehensive Cooperation)'의 세 가지 프로그램 추진방향이 포함되어있다. 이와 함께 KOICA는 외교부가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포괄적 긴급지원 프로그램 중 약 74억 원 규모, 68개 사업을 코로나19 대응과 연계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이처럼 국제개발협력 분야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외교부와 KOICA는 시민사회 및 국제사회 연대를 통한 취약계층 지원과 보건의료시스템 역량강화를 통한 국가·지역사회 회복력(resilience) 증진을 강조하고 있다.

2) 한국 개발협력 시민사회의 코로나19 대응 활동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15]는 지난 4월 '국제사회의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한국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단체들의 호소문'을 발의하여 보건·의료체계 및 기본적인 사회기반시설이 열악한 개발도상국의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치료를 돕기 위한 국제적 연대와 공동 해결방안 모색을 촉구하고, 한국 정부에 개도국 지원 절차 간소화 및 신속한 자원 전달, 인도적 지원을 위한 특별재원 마련, 정부-시민사회 협의체 구성 등을 요청했다.

또한 KCOC는 5월, 코로나19로 생명과 생존 위기에 직면한 개발도상국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사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KCOC 어필>을 발표했다. 2020년 내에 방역이 취약한 64개 개도국에 620억 원 규모 지원 계획을 밝혔으며, 이를 위한 기업, 민간 모금기관 등 외부 협력확대와 더불어 정부-시민사회의 포괄적인 협력 및 공동대응을 촉구했고, 사회적 연대와 국제 공조로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것을 어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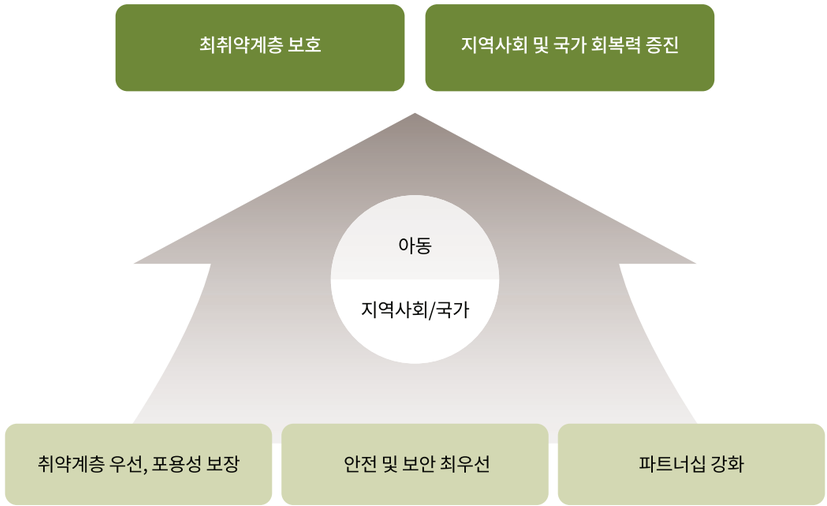
14) ODA KOREA: Building TRUST(Transparency, Resilience, Unity, and Safety Together)
15) 국제구호개발과 인도적 지원 활동을 하는 140여 개 한국 개발협력 NGO단체들의 연합체로 1999년에 설립되었음.

국제개발협력 이슈

1. 굿네이버스 코로나19 대응 전략

굿네이버스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굿네이버스 글로벌 전략(Good Neighbors Global Response Plan against COVID-19)'을 수립했으며, 굿네이버스 파트너 국가들은 이 글로벌 전략에 따라 국가별 코로나19 대응 추진계획을 세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모든 사업국과 모금국들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주간 상황보고서(Weekly Situation Report)를 통해 진행 상황을 매주 업데이트하여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상호보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굿네이버스 글로벌 전략 목표 및 주요 원칙



굿네이버스의 코로나19 대응은 크게 세 단계—'준비단계(1단계), 대응단계(2단계), 복구단계(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에서는 주민들에게 코로나19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모든 사업 분야에서 잠재적 위험요인이 고려되도록 한다. 2단계는 긴급지원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 확진자 발생 시 즉각 대응하며, 모든 사업 분야에서 위험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3단계는 지역사회 복구를 위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생계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2차 감염을 예방한다. 모든 단계에는 '취약계층 우선/ 포용성 보장', '활동가 및 지역주민의 안전 보장 최우선', '파트너십을 통한 사업 효과성 증진'의 세 가지 주요 원칙이 적용된다. 사업국은 모든 단계에서 사업지역 내 아동, 여성, 장애인, 노인 등 최취약계층의 권리와 안전에 위협이 되는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 분야별로 대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굿네이버스는 코로나19 대응이 일시적인 긴급구호에 그치지 않고 굿네이버스가 협력하는 모든 국가와 지역사회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의 힘으로 회복되고,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발전과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각국의 특수한 상황에 맞게 중장기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여 대응하고 있다.

2. 한 눈에 보는 굿네이버스 코로나19 대응

· 코로나19 대응 사업국 (총 35개국)

에티오피아

마스크 배분 및 손씻기 캠페인 진행

방글라데시

코로나19 예방교육 및 캠페인

과테말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올바른 마스크 착용 교육

니카라과

위생키트(Hygiene kit) 배분

잠비아

푸드 패키지(Food package) 배분

마다가스카르

진단키트 및 의료장비 배분

코로나19 대응 사업 참여자 수

아동 총 **1,718,447**명

주민 총 **2,583,447**명

코로나19 대응 주요 현황 (2020년 6월 말 기준)

- 코로나19 예방 교육 참여자 수: 총 **1,114,739**명
- 위생키트 지원 받은 수: 총 **457,726**명
- 식량 지원(푸드키트) 받은 사람 수: 총 **262,910**명
- 대안교육 참여자 수: 총 **54,335**명
-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사회적 지원 받은 사람 수: 총 **570,990**명
- 감염 예방 위한 개인보호장비 (마스크, 방호복 등) 배분 수: **2,480,466**개
- 개발도상국 정부에 지원한 진단키트 수: **93,414**개
- 협력 국제기구/단체 수: **158**개 기관

주요 파트너

· 국제기구: unicef, UNOPS, World Health Organization, WFP World Food Programme

· 정부/공공기관: KOICA 한국국제협력단,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주 네팔 대한민국 대사관, 주 케냐 대한민국 대사관, 주 마다가스카르 대한민국 대사관

3. 취약계층 보호 및 지역사회 회복력 강화를 위한 굿네이버스 코로나19 대응 주요 사업

· 파라과이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육방송 제작 지원

굿네이버스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학교에 갈 수 없는 아동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미디어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교육 격차를 줄이고 있다. 지난 4월 27일 파라과이 대통령은 2020년 말까지 휴교령을 내렸고, 아동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파라과이 정부는 굿네이버스에 공교육을 대신할 수 있는 공영방송 교육컨텐츠 제작을 제안했다.

굿네이버스 파라과이는 기존에 ODA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던 교육사업의 연장선에서 KOICA, 한국교육방송(EBS), 파라과이 교육과학부와 협력하여 'Good Kids'라는 교육방송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었다. 초등학생 대상의 스페인어, 과라니어 교육과 아동권리 교육을 담고 있는 'Good Kids'는 총 103편으로 기획하여 현재까지 95편의 에피소드를 제작했고 5월 1일부터 송출되어 많은 아이들이 매일 TV를 통해 교육을 받고 있다.

>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갈 수 없어서 심심했는데요. TV를 보면서 재밌게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아요. 손을 잘 씻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어려운 단어도 따라하면서 쉽게 배울 수 있었어요."
>
> - 미티카 밀라그로스(10), 로사(5) 자매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서 'Good Kids'를 시청하는 파라과이 아이들의 모습

'Good Kids' 방송 안내

· 미얀마 지역사회 보건·의료 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국제기구 협력

굿네이버스 미얀마는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WHO가 개최하는 코로나19 조정회의에 참석하여 미얀마의 코로나19 대응 방안과 협력에 관해 논의했다. 미얀마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지원 노력 끝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진단 역량 강화 및 지역 보건 증진 프로젝트' 수행 파트너로 선정되었고, 유엔프로젝트조달기구(UNOPS)로부터 기금을 받아 코로나19 진단키트(25,000회 검사 분량)을 지원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미얀마에는 굿네이버스를 통해 채취·수송·보존·배지키트 60,000개, 30,000가구 대상으로 개인위생키트, 코로나 위생 정보 팸플릿 등이 배포되었다.

굿네이버스 미얀마, UNOPS로부터 기금 지원받아 코로나19 진단 역량강화 및 지역 보건 증진 프로젝트 수행

· 필리핀 여성들의 경제적 역량 증진을 위한 저축그룹 활동 지원

굿네이버스 필리핀은 2019년 5월에 산 페드로(San Pedro) 지역 내 여성 20명으로 구성된 여성저축그룹(Women's Savings Group)을 조직하여 개인과 공동체에 필요한 자금을 자발적으로 마련하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코로나19 감염이 점차 확산되면서 사회적 모임 또는 조직 활동이 금지되었고, 이로 인해 여성들의 소득활동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성저축그룹은 기존에 저축해 놓은 공동자금(Social fund)을 이용해서 식량을 마련하고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룹원들이 자발적으로 협의한 끝에 'Micro Business Pandemic Loan'이라는 코로나19 위기 대응 대출 제도를 별도로 마련해 지역사회 내 소외된 여성들이 긴급지원을 받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여성저축그룹 정기회의

· 우간다 내 난민 생계지원 및 난민여성 소득증대그룹 활동 진행

굿네이버스 우간다는 2018년 8월부터 난민정착촌에서 아동, 여성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자립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현재 차카(Kyaka) II 난민정착촌에는 난민에게 배급되는 현물과 현금이 생계를 유지하기에 터무니없이 부족한데,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이 불가능한 아동, 장애인, 노약자들이 받는 생계 위협은 매우 심각하다. 이에 굿네이버스는 지역위원회와 함께 식량지원이 가장 시급한 사람들을 파악하고 총 1,100가구에게 식량과 위생물품을 배분했다.

우간다 차카 II 난민정착촌 코로나19 대응 식량 및 위생물품 배분

굿네이버스는 2019년에 KOICA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난민 여성들의 역량 증진을 위한 여성개발센터(Women's Development Center, WDC)를 건축했는데, 이번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기존의 여성소득증대그룹을 중심으로 현지 NGO, UNHCR이 협력하여 해당 센터에서 면 마스크 제작 훈련을 진행할 수 있었다. 직업훈련에 참여하여 재봉기술을 습득한 12명의 여성들은 현지 NGO와 협력하여 면 마스크 5,600개를 제작하고, 난민들에게 배분할 계획이다.

면 마스크 제작 중인 난민 여성

> "작년부터 굿네이버스에서 진행하는 여성 기술훈련을 통해 재봉기술을 배워 경제활동을 시작했어요. 제가 직접 번 돈으로 아이들 학비를 내고 가축도 구입할 수 있었어요. 코로나19 확산 이후 경제활동이 제한되었지만 여성소득증대그룹 활동에 꾸준히 참여하면서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었답니다. 앞으로도 면 마스크를 제작하여 얻는 수익으로 작은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
> - 여성소득증대그룹에 참여하는 난민 여성

Recommendations

국제 연대를 통한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

전 세계적인 보건, 경제,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연대와 파트너십이 매우 중요하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이제 더 이상 어느 한 국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닌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력과 대응이 필요한 전 지구적인 문제가 되었다. 강력한 국제, 다자간 파트너십은 우수 대응사례(best practice)를 공유하고, 학습과 자원 공유를 통해 전 세계가 더 나은 대응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코로나19가 더 많은 국가로 확산되고 장기화되어가는 상황에서 감염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보다 공고한 국제협력체제와 조정기능이 갖추어져야 하며 기업과 시민사회, 민간단체 등으로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현장 중심의 대응 및 시민사회 파트너십 확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는 전 세계의 경제·보건의료시스템과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 문제를 드러내고 있으며 특히 개발도상국이나 인도주의 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에게 더욱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빈곤국가의 취약계층은 국가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공공서비스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파악이 쉽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취약계층 지원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현장 기반의 사업수행체계와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단체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국제사회 및 각국 정부는 시민사회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시민사회의 현장 활동 경험과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코로나19 대응 활동을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 대응 역량강화와 네트워크 기반의 효과적인 사업 수행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굿네이버스가 도움이 필요한 곳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 '지역 기반의 사업수행' 원칙이 있다. 굿네이버스는 빈곤지역 37개 국가에서 200여 개 지역개발사업장(CDP)을 중심으로 사업을 수행하며, 주민들로 구성된 지역개발위원회(CDC) 및 다양한 현지 단체들과 협력하고 있다. 지역 기반 조직과 자원을 활용하여 공동체 발전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하기 때문에 사회·문화와 주민들의 욕구(Needs)를 더 깊이 파악하여 적재적소에 필요한 지원이 가능하다. 효과적인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는 주민 협력과 지역 네트워크 중심의 소통이 중요하며, 특히 감염병으로 인해 외부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지역사회가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취약국의 코로나19 회복을 위한 재원 확대 및 다각적인 접근 필요

한국 정부는 「2021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보건ODA 수요 급증에 대비하여 보건·의료ODA를 핵심 분야의 하나로 선정하고 그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현재 당면한 국제적 보건 위기는 경제, 식량, 교육 등 사회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빈곤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건 분야를 비롯하여 여러 분야의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취약국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ODA를 추진함에 있어 지역사회의 생계·생활기반을 고려하여 사회 전반이 함께 회복될 수 있도록 보다 다각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약어

줄임말	영문명	국문명
CDC	Community Development Committee	지역개발위원회
CDP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	지역개발사업장
COVID-19	Coronavirus disease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CSO	Civil Society Organization	시민사회단체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정보통신기술
KCOC	Korea NGO Council for Overseas Development Cooperation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한국국제협력단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발전목표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유엔개발계획
UNHC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유엔난민기구
UNICEF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유엔아동기금
UNOPS	United Nations Office for Project Services	유엔프로젝트조달기구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

참고문헌 및 사이트

관계부처 합동(2020). 2021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굿네이버스(2020).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굿네이버스 글로벌 전략(Good Neighbors Global Response Plan against COVID-19).
굿네이버스(2020). 굿네이버스 코로나19 대응 상황 보고서(Good Neighbors COVID-19 Responses Situation Report).
굿네이버스(2020). 굿네이버스 사업국 주간 상황보고서(Weekly Situation Report).
Cambridge University Press(2020).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20: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Covid-19.
Humanitarian Policy Group(2020). ‘All eyes are on local actors’: Covid-19 and local humanitarian action.
The Committee for the Coordination of Statistical Activities(CCSA), How COVID-19 is changing the world: a statistical perspective. p.60
UN(2020). A UN framework for the immediate socio-economic response to COVID-19.
UNDP(2020). Covid-19 and social protection of poor and vulnerable groups in Latin America: a conceptual framework.
WHO(2020). Community-based health care, including outreach and campaigns, in the context of the Covid-19 pandemic.
WHO(2020). Global Health Expenditure Database(검색일: 2020.5.7.)
World Bank(2020). Community response to Covid-19: The resilience of Indonesia.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2015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www.oecd.org
세계보건기구(WHO) www.who.int
유엔난민기구(UNHCR) www.unhcr.org
유엔아동기금(UNICEF) www.unicef.org
유엔여성기구 www.unwomen.org
한국국제협력단(KOICA) www.koica.go.kr